

“심리학은 유행(fads)과 풍조(fashion)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유행으로 인해 특정 문제나 접근방식에 과잉 집중하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중요한 문제나 접근법은 잘 인식되지 않고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Rozin, 2007, p. 754).”

음악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조철기, 2016). 텔레비전을 통하여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과 뮤직비디오를 접할 수 있고(홍연주, 2010),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심지어 일이나 공부를 할 때에도 음악을 듣는다. 이처럼 음악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사회심리학에서는 음악에 대해 거의 말하고 있지 않다(Rentflow, 2012). 이와 관련하여, Rozin(2001, 2007)은 다수의 심리학 연구가 유행에 의해 유도되고, 유행의 일부가 아닌 중요한 영역이 무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 연구의 초점은 너무나 좁고 일상생활의 많은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Rozin, 2001, 2007).

음악은 오락과 문화 전이(culture transmission)의 가장 오래된 형태 중 하나이며, 모든 문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된다(Wallin, Merker, & Brown, 2000). 그 가운데 노래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 정서를 타인과 공유한다. 특히, 대중가요는 대중성과 상업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담아낸다. 예를 들어, 70, 80년대에 금지곡으로 지정되었던 노래의 가사들을 통해 암울했던 시대상과 그 속에 담긴 저항정신과 자유를 갈망하는 투쟁정신을 엿볼 수 있고, 최근 발매된 아이돌 음악을 통해서도 발

매시기에 널리 쓰였던 유행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중가요는 그것이 만들어지고 불리던 시절의 사회적 문제나 화젯거리를 노래 가사로 탄생시켜 대중의 의식과 흐름을 바꾸어 놓거나 주도해 나가고(박범중, 2015), 사람들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가사에 담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를 통하여 의견과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Pettijohn & Sacco Jr, 2009). 따라서 노래 속에는 각 개인의 심리적 특성들이 투영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된 심리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최정열, 조운동, 박정열, 2001), 유행가를 통해 우리는 특정 사회 구성원들 공통의 심리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중음악은 청중들이 속한 문화를 담아내는 좋은 도구이며, 대중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나 음악이 특정 사회와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심리학 내에서 음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새로운 영역을 개방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며,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호기심, 세심한 관찰과 우려를 가져야 한다(Rozin,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음악이라는, 연구 주제로서는 생소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특히 대중음악과 문화성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물음에 두 가지 연구방법, 즉 내용분석과 조사연구법을 사용하여 답하고자 하였다.

문화성향의 측정 기준

문화성향이란 개인이 특정 문화의 전통, 규범, 관행에 영향을 받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도로(Tsai & Chentsova-Dutton, 2002), 개

인의 행동과 사고를 이끄는 ‘문화적 작동 모델’ (cultural working model)이라고 할 수 있다 (최태진, 2004). 문화성향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이다. Hofstede(1980)가 비교문화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은 심리학 외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차원은 주로 문화 간 비교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동일 문화권 사람들의 성향을 분류하고 개인차를 이해하려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다(Triandis, Leung, Villareal, & Clack, 1985).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각 인격체가 본질적으로 독립된 존재라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자신의 고유 속성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것을 문화적 규범으로 삼으며, 개인은 타인과 구분되고 독특하며 역동적 인지의 중심이자, 정서와 판단의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여겨진다(Markus & Kitayama, 1991). 반면,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 간에 근본적 연결을 주장하고, 상호의존성의 유지를 규범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의 생각, 감정 및 행동을 인지하여,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다르게 결정하고, 적절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장 의미 있고 완벽해진다고 본다(Markus & Kitayama, 1991).

문화성향을 분류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는 영향 대 적응(influence vs. adjustment)이 있다. 이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보다 구체적인 측면으로(Tsai, Miao, Seppala, Fung, & Yeung, 2007), 대인관계에서의 대처방식을 설명하여 준다. 영향 대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Rothbaum, Weisz와 Snyder(1982)가 제안한 이차

적 통제(secondary control)라는 통제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차적 통제란 자기 자신을 환경에 맞게 적응시키려는 시도로,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일차적 통제(primary control)와는 구분된다. 이러한 통제 유형에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예컨대, Weisz, Rothbaum과 Blackburn(1984)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우 일차적 통제가 선호되고 적응적인 기능을 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는 이차적 통제가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며 적응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성현, 성승연, 2012). 이는 싱가포르인(Chang, Chua, & Toh, 1997)과 한국인(최상진, 1995) 및 중국인(Bond & Hwang, 1986)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통제방식의 문화차는 교육(Purdie & Hartie, 1996), 도움 구하기(Lim & Ang, 2006), 수업 선택(Morling, 2000), 스트레스 대처방식(McCarty et al., 1999), 자녀 양육 방식(Rothbaum, Weisz, Pott, Miyake, & Morelli, 2000; Trommsdorff & Friedlmeier, 1993), 종교(Sasaki & Kim, 2011)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일차적 통제, 즉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선호되고, 집단주의적 문화 성향을 갖는 사회에서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차적 통제 유형의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2).

한편, 사람들이 느끼고자 하는 정서에도 문화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도 문화성향을 분류할 수 있다. Tsai, Knutson과 Fung(2006)은 실제 정서(actual affect)와 구분되는 이상적 정서(ideal affect)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는 실제로 경험하는 정서와는 별개로 이상적으로 느끼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열광’, ‘흥분’ 등으로 대

표되는 고각성 긍정정서(high-arousal positive states; HAP)와 ‘차분한’, ‘평화로운’과 같은 저각성 긍정정서(low-arousal positive states; LAP)로 나뉜다(심윤지, 최인철, 2009). Tsai 등(2006)은 유럽계 미국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제 정서와 이상적 정서를 조사하였는데, 실제 정서와 이상적 정서 간에는 아주 약한 상관관이 관찰되었으며, 실제 경험하는 정서에서는 문화차가 관찰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상적 정서에서는 문화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럽계 미국인들은 고각성 긍정정서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저각성 긍정정서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아시아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목표에 적응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차분한, 평화로운, 편안한 것과 같은 저각성 긍정정서를 더욱 가치 있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문화적 산물

문화심리학자들은 개개인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화적 산물, 즉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문화의 유형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다. 문화적 산물(cultural products)이란, 사람들이 따르는 법, 광고 기법, 건축양식, TV 프로그램, 뉴스 기사, 소비자 물품, 사람들의 이름과 장소에 붙은 이름, 사용하는 언어, 사진, 예술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Cohen, 2007), 특정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고,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유물(social artifacts)’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중가요의 가사는 언어이자

기호로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의미들을 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다시 노래를 향유하는 사회구성원들과 공유되므로 대중가요 가사 또한 문화적 산물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Lamoreaux와 Moring(2012)은 문화적 산물을 연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화의 발현을 “내부”와 “외부” 두 측면에서 모두 연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Adams & Markus, 2004; Shweder, 1989). 둘째, 문화적 산물의 측정은 코딩 시 평정자의 편향에 취약할 수 있지만, 참조 집단 효과(Heine, Lehman, Peng, & Greenholtz, 2002), 결핍 효과(Peng, Nisbett, & Wong, 1997), 또는 자기 보고 편향(Schmack, Oishi, & Diener, 2005)과 같이 자기 보고식 조사연구에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편향에 취약하지 않다. 또한, Lamoreaux와 Moring(2012)은 문화적 산물 연구가 사적인 내면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존의 문화차 연구를 보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문화적 산물이 문화차 연구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문화적 산물을 통해 문화적 모델을 연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문화적 모델은 개인의 심리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산물과 관습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모델은 개개인의 마음에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물에 문화적 모델이 나타난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개인, 심리적인 수준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더 명확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Snibbe & Markus, 2005). 마지막으로, Moring과 Lamoreaux(2008)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차원을 문화적 산물을 통하여 연구했을 때 관찰되는 효과크기는 자기보고식 조사에 비하여 크다. 상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문화적 산물을 통

한 연구는 자기보고식 조사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편향들에 취약하지 않으며, 개인주의-집단주의로 대표되는 문화성향을 측정할 때 더 큰 통찰을 제공할 뿐 아니라 관찰되는 효과크기 또한 크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적 산물을 통한 문화성향 연구는 문화와 정신(psyches)이 어떻게 상호를 형성하는가(Morling & Lamoreaux, 2008)에 대한 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리학 연구 주제로서의 음악

기존 심리학 연구에서 음악은 특정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으로 사용되었으나(e.g., Goldstein, 1980; Lamb & Gregory, 1993; Nayak, Wheeler, Shiflett, & Agostinelli, 2000; Smith & Curnow, 1966), 최근 들어 대중가요 가사를 분석하여 글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연구가 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Snibbe와 Markus(2005)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중가요 가사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우선시하는 가치에 따라 내용분석하였고, 김서홍(2018)은 80년대 대중가요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심리 표상을 살펴보았다. 최정열 등(2001)은 해방 이후부터 1996년까지의 대중가요 가사를 분석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탐색하기도 하였으며, Pettijohn과 Sacco, Jr(2009)는 1955년부터 2003년까지의 빌보드 수상곡들의 가사를 분석하여, 미국의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살펴본 바 있다. 대중가요는 최근 한국에서도 연구의 대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국문학이나 평론의 관점에서 수행되어 있어, 대중가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심리적 측면을 파악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최상진 등, 2001). 또한, 광고(Frith & Wesson, 1991; Han & Shavitt, 1994; Yoon, 2002; Zhang, 2009), 교과서(Imada, 2012), 책(Hamamura & Xu, 2015; Twenge & Campbell, 2013; Twenge, Campbell, & Gentile, 2012), 인터넷 홈페이지(Kim, Coyle, & Gould, 2009; Kim & Papacharissi, 2003), 페이스북(Hong & Na, 2018; Na, Kosinski, & Stillwell, 2015)과 기타 SNS(Tsai & Men, 2012) 등 다양한 문화적 산물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성향은 분석대상이 된 바 있으나, 대중가요 가사를 통해 문화성향을 탐구한 연구는 DeWall, Pond, Jr, Campbell과 Twenge(2011)가 유일하다.

연구개관

대중음악은 문화적 산물로서 그것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가치들을 담고 있으며, 이 둘은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음악과 문화성향을 함께 다룬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음악과 문화성향의 관계를 시간에 걸쳐 탐색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문화성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개인의 문화성향이 여러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 1에서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대중음악 가사에 드러난 한국인들의 문화성향을 내용분석하여 한국인들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화하였는지 검증하였다. 한국인들이 점차 개인주의화되었다는 생각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으며(e.g., 브릿지경제, 2016; 한겨레, 2005), 문화성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문화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인구학,

광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심리학 연구들은 이미 다수 존재한다(김혜숙, 1995; 나은영, 민경환, 1998; 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 류승아, 2009; 표정민, 최인수, 2015; 한규석, 신수진, 1999;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진형, 2012). 그러나 1997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한국에서 수행되었던 문화성향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박혜경과 김상아(2018)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문화성향은 개인주의적이기보다는 여전히 집단주의적이다. 또한, 비록 20년 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간격에 대한 분석이기는 하나, 박혜경과 김상아의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시기나 논문 출판 시점에 따라 문화성향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성향 연구는 대부분 자기보고식 측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고(한규석, 신수진, 1999), 개인주의 가치의 증가는 젊은 층과 고학력, 고소득층과 같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 정리하자면, 사회에 만연해있는 한국인들의 개인주의화에 대한 생각을 검증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지지해 주기에는 결과의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 연구결과가 혼재된 원인으로 기존 연구들의 측정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문화적 산물은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를 반영하여 창조되므로, 특정 문화적 산물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지닌 두드러진 가치를 담고 있다. 즉, 문화적 산물은 특정 문화권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가 서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이

를 통하여 문화성향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 개개인의 내면세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측정보다 문화성향을 보다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Morling & Lamoreaux, 200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인의 문화성향 변화가 대중음악 가사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기보고식 측정 이외의 방식으로 문화성향의 변화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성향 중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향 대 적응(Morling et al., 2002)과 이상적 정서(Tsai et al., 2006)를 대중음악 가사 분석에 적용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두 가지 차원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권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영향 대 적응 차원의 경우,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는 동기를 가지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자신을 맞추려는 동기를 지닌다. 한편, 개인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각성 수준이 높은 긍정 정서를 이상적 정서로 평가하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은 각성 수준이 낮은 긍정 정서를 이상적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미 비교문화 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바 있다. 더불어, 위 두 가지 차원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 대중가요라는 특수한 측정도구를 더욱 면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대중가요 가사는 많은 경우 연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3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므로 다른 문화적 산물에 비하여 압축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중가요 가사에 빈번히 나타나는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이나 정서표현과 같은 세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차원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와 친구, 이웃, 가족 등의 타인과의 관계를 넓고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과 관련이 있는 동시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문화 차원인 영향 대 적응과 이상적 정서를 분석에 사용하는 것이 대중가요에 반영된 문화성향을 보다 잘 포착해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 대중가요 가사에서의 문화성향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국 대중가요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제가 사랑과 이별 이야기로, 사랑과 같은 낭만적 관계도 대인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틀인 영향 대 적응이라는 기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랑과 이별이라는 주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정서표현이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라 이상적 정서를 중심으로 가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대중가요 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성향을 잘 측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 대 적응과 정서표현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한국이 최근 들어 개인주의화되었다면, 대중가요 가사에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의 특징이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영향 대 적응 중 영향, 즉 자신이 처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바꾸어나가려는 경향을 많이 나타낼 것이다. 반대로, 여전히 집단주의적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대중가요 가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적응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정서표현의 경우, 대중가요 가사에서 이상적 정서보다 실

제 정서가 더 드러났을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가요 가사에서 집단주의적인 문화성향이 많이 나타났다면, 그것이 이상적 정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상적 정서에서 주장하는 저각성 긍정정서와 같은 낮은 강도의 정서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또한, 한국이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개인주의화되었다면, 북미와 같은 개인주의 문화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이상적 정서가 가사에 더 많이 반영되어 드러났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문화적 산물인 대중가요 가사에서 한국인의 문화성향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가?

가설 1: 1980년대에서 시작하여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대중음악 가사에서 행위자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더 많이 관찰될 것이다.

가설 2: 1980년대에서 시작하여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대중음악 가사에서 상황의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이 관찰될 것이다.

가설 3: 1980년대에서 시작하여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한국 대중음악 가사에서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관찰될 것이다.

방법

분석대상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발매된 한국 대중가

요 가운데 골든컵¹⁾을 수상한 566곡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중 연대 별로 40곡씩 총 160곡을 무작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본 추출 시 동일한 가수의 곡이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팀의 멤버가 솔로가수로 데뷔한 경우나 협업(collaboration이나 featuring)을 한 경우에는 표본에 포함시켰다(예: 슈퍼주니어와 규현, 씨스타와 소유).

분석단위

최상진 등(2001)의 연구와 같이, 후렴을 포함한 1절의 가사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먼저, 전체 가사를 문서화한 후, 이 문서화된 가사를 연구자가 노래를 들으며 파악한 가사와 대조하였다. 이러한 대조 과정을 통해 오타나 잘못 기재된 가사를 수정하였다.

코딩스킴

차원 1인 영향 대 적응(influence vs. adjustment)에 따라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Morling 등(2002)에서 사용된 코딩스킴을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Morling 등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행위자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행위자가 상황에 적응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기술한 문장을 내용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코딩스킴은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인지 비사회적인지,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 혹은 다른 사람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행위자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상황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등의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 차원들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의 의도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의도(차원1A)는 가사 속의 행위자(화자)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 상황의 의도(차원1B)는 가사 속의 행위자가 주어진 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는지 혹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가사를 통해 예를 들면, 행위자의 의도의 경우 'Just one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이라는 가사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수 없어요'라는 가사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상황의 의도의 경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 드리겠어요'는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뭘 어찌고 저찌고 떠들어대서. I do what I do 그니까 넌 너나 잘하셔'는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예시로 사용된 가사에 대한 정보는 부록 참고).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 가사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행위로 관철시키거나(즉, 행위자의 의도 O), 화자가 주어진 상황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즉, 상황의 의도 X) 양상이 나타날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

1) 골든컵이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방영되었던 가요 프로그램 '가요톱10'에서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에게 주는 상이다. '가요톱10'이 폐지된 이후 방영된 뮤직뱅크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한 곡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었다.

차원 2인 정서를 바탕으로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Russell(1980)의 정서 분류 기준을 사용하였다. Russell(1980)은 각성 수준(고각성 대 저각성)과 정서(긍정 대 부정)를 기준으로 정서를 네 가지 하위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고각성 긍정정서에는 신이 난, 흥분한, 놀라운, 아주 기뻐하는, 행복한 등의 정서가 포함되며, 저각성 긍정정서에는 기쁜, 만족스러운, 흡족한, 고요한, 차분한, 여유있는 등의 정서가 포함된다. 고각성 부정정서에는 불안해 하는, 두려워 하는, 긴장한, 화난, 괴로워 하는, 짜증 난 등의 정서가 포함되며, 저각성 부정정서에는 비참한, 우울한, 슬픈, 따분한, 의기소침한 등의 정서가 포함된다. 문화적 산물에 드러난 정서 표현을 통해 문화성향을 알아본 기존 연구에서는(e.g., Huang & Park, 2013; Tsai et al., 2016; Tsai, Louie, Chen, & Uchida, 2007) 긍정정서를 각성 수준, 즉 고각성 긍정정서와 저각성 긍정정서의 두 가지로 나누어, 문화권마다 사람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상적 정서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상적 부정정서(ideal negative affect)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중가요 가사는 사랑 이야기가 주된 주제이며(이상욱, 2015), 따라서 사랑이 주는 기쁨과 설렘과 같은 긍정정서뿐만 아니라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과 같은 부정정서도 가사에 꽤 많이 표현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고각성 부정정서로 분류되는 분노, 죄책감, 두려움과 같은 자아초절적 정서의 영향을 더 오래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긍정정서 뿐만 아니라 부정정서 또한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되는 문화이다(Markus & Kitayama, 1991).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가사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서를 고각성 긍정, 저각성 긍정, 고각성 부정 및 저각성 부정정서 중 하나로 분류하여, 가사에 표현된 긍정정서와 더불어 부정정서에서도 각성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 가사에서 저각성 긍정정서에 비교하여 고각성 긍정정서가 많이 나타날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이 표현된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코딩스킴과 예시는 부록의 표 1에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정자들은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가 가사에 어느 정도 강하게 드러나 있는지 1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로 평정하였다(1: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4: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정자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평정자들로 하여금 160개의 곡 각각에 대하여 개인적인 친숙도를 1에서부터 4까지의 숫자로 평정하도록 하였다(1: 전혀 친숙하지 않다, 4: 매우 친숙하다).

분석절차

연구가설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부생 두 명이 평정자로 분석에 참여하였다. 두 평정자는 모두 독립적으로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내용분석에 앞서 평정자들에게 코딩스킴의 내용과 코딩 방법을 교육하였다. 이후, 평정자들에게 4회기에 걸쳐 40곡씩의 가사를 제시하였다. 이때, Randomizer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160곡의 순서를 뒤섞은 후에 40곡씩 나누어 제시하였다. 평정자들은 먼저 가사를 읽은 후 코딩스킴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글을 분석하였다. 행위자의 의도의

경우, 가사에 드러난 화자의 의도와 행위가 일치한다면 O로, 그렇지 않다면 X로 코딩하였다. 상황의 의도의 경우, 가사에 나타난 상황과 화자의 행위가 일치한다면 O로, 반대된다면 X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가사에 주로 표현된 정서를 고각성 긍정, 고각성 부정, 저각성 긍정 및 저각성 부정정서들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또한 평정자들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ohen의 Kappa 계수로 평정자 간 합치도를 계산하였다. 내용분석 연구에서 평정자는 측정 오류의 중요한 원천이 되므로, 측정 절차의 관찰자 변동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평정자 간 합치도 (inter-rater reliability)를 사용하여야 한다(Landis & Koch, 1977). 평정자 간 합치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평점점수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김양분, 2004). 본 연구는 각 차원을 O, X로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평정이 범주로 분류될 때 흔히 사용되는 Cohen의 Kappa 계수를 활용하여 일관성을 추정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평정의 유사성을 더욱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Landis와 Koch(1977)가 제안한 기준을 사용하여 평정자 간 합치도를 해석하였다. Landis와 Koch(1977)는 Kappa 계수가 .61에서 .80 사이일 때는 상당한 일치도 (substantial), .81에서 .99 사이의 값을 가질 때는 완벽한 일치도(almost perfect)를 지니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평정자 간 합치도는 .792부터 .875의 범위에 있었다(행위자의 의도 $k=.820$, 상황의 의도 $k=.792$, 정서 $k=.875$). 이는 Landis와 Koch(1977)이 제안한 Kappa 계수의 등급 가운데 완벽한 일치도 등급에 해당하는 값으로, 두 평정자의 판단이 대부분 일치하여 신뢰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평정자들은 가사에 나타난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의 강도와 개인적인 곡의 친숙도를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평정자들의 곡 친숙도가 분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연령이 30대 후반인 두 명의 평정자에게 표본 중 일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료를 분석한 평정자들은 현재 연령이 20대 초중반으로서 2000년대와 201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발표된 노래에는 상대적으로 친숙하지 않아 분석 결과가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자란 30대 후반의 평정자들에게 표본 중 약 25%를 분석하도록 한 후, 이들의 분석 결과를 20대 평정자들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48곡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30대 평정자들 간의 합치도는 행위자의 의도 $k=.744$, 상황의 의도 $k=.739$, 그리고 정서 $k=.739$ 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평정자들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이나,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르면 상당한 일치도를 보인 것이므로 30대 평정자들 또한 대부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대와 30대 평정자들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를 상관분석한 결과 $r=.512$, $p<.001$ 로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매연대에 따른 평정자들의 친숙도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발매연대를 예측변수로 투입하고, 20대 평정자들과 30대 평정자들의 친숙도를 각각 합한 값을 준거변수로 사용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20대 평정자와 30대 평정자의 친숙도가 발매연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F(3,44)=6.166$, $p<.01$.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발매된 노래들의 경우 30대가 20대보다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980년대와 2010년대에 발매된 노래들에 대한 친숙도는 20대와 30대 평정자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대와 30대 평정자 간 일치도는 행위자의 의도는 $k=.477$, 상황의 의도는 $k=.401$, 그리고 정서는 $k=.196$ 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s=.001, .005$ 와 $.006$). 종합하건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의 노래들에 대해 30대의 평정자들이 20대의 평정자들보다 친숙하다고 느꼈으나, 연령대가 다른 평정자 집단 간 내용 분석 일치도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였기 때문에, 곡에 대한 평정자 개인의 친숙도가 내용분석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내용분석이 완료된 후, 먼저 발매연대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그리고 정서 표현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명명척도와 등간척도(또는 비율척도)로 측정된 한 개 혹은 여러 개의 독립변인과 명명척도로 측정된 한 개의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이다(최현철, 2013). 본 연구에서는 발매연대를 예측변수로 사용하였고, 평정자들이 분석한 세 가지 차원을 결과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평정자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평정된

곡 친숙도를 공변량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발매연대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의 강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ANCOVA를 실시하였다. 발매연대를 예측변수로, 평정된 강도를 준거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곡의 친숙도를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주요 가설 검증에 앞서 내용분석 결과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행위자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된 곡은 89개(55.6%),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곡은 71개(44.4%)였다. 상황의 의도와 행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분류된 곡은 96개(60.0%),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 곡은 64개(40.0%)로 나타났다. 정서는 고각성 긍정정서에 26개(16.3%), 저각성 긍정정서에 20개(12.5%), 고각성 부정정서에 27개(16.9%), 저각성 부정정서에 87개(54.4%)가 속하였다.

추가적으로, 가수의 성별은 여성이 58명(36.6%), 남성이 91명(56.9%), 혼성인 경우가 11명(6.9%)으로 나타났으며, 가수의 팀 구성은 개인이 94명(58.8%), 팀이 66명(41.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1.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의 의도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차원 1		행위와 일치		행위와 일치하지 않음	
행위자의 의도		89 (55.6)		71 (44.4)	
상황의 의도		96 (60.0)		64 (40.0)	
차원 2		HAP	LAP	HAN	LAN
정서		26 (16.3)	20 (12.5)	27 (16.9)	87 (54.4)

* HAP 고각성 긍정정서 / LAP 저각성 긍정정서 / HAN 고각성 부정정서 / LAN 저각성 부정정서

표 2. 가수의 성별과 팀 구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가수의 성별		팀 구성	
여성	58 (36.6)	개인	94 (58.8)
남성	91 (56.9)	팀	66 (41.3)
혼성	11 (6.9)		
합계	160 (100.0)	합계	160 (100.0)

다음으로, 연구의 주요 가설, 즉 곡 발매연대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이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곡 발매연대는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코딩하였다(즉, 1980년대: 1, 1990년대: 2, 2000년대: 3, 2010년대: 4). 이 때 평정자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평정된 곡 친숙도를 분석에 공변량으로 투입하였다.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의 의도, 그리고 정서는 결과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곡의 발매연대에 따라 가사 속 영향대 적응의 양상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위자의 의도와 상황의 의도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행위자의 의도(혹은 상황의 의도)가 행위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곡들이 기준집

단으로 사용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발매연대가 행위자의 의도와($b = -.034$, Wald $\chi^2(1) = .054$, *n.s.*) 상황의 의도에($b = -.210$, Wald $\chi^2(1) = 1.966$, *n.s.*)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다음으로, 곡의 발매연대에 따라 가사에 드러난 정서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원2의 정서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차원2의 정서를 각성 수준과 정서가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각성 정서에 대한 분석에서는 저각성 정서를 기준 집단으로 사용하였고, 긍정정서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정정서를 기준집단으로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발매연대가 고각성 혹은 저각성 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537$, Wald $\chi^2(1) = 9.79$, $p < .01$). 즉, 발매연대가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고각성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구체

표 3. 발매연대에 따른 차원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과변수	예측변수	B(S.E)	Odds Ratio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행위자의 의도	발매연대	-.03(0.45)	0.97	.72	1.29
상황의 의도		-.21(0.15)	0.81	.60	1.09

* 참조범주: 행위와 일치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발매연대에 따른 정서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과변수	예측변수	B(S.E)	Odds Ratio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고각성(vs저각성)	발매연대	0.54(0.17)**	1.71	1.22	2.39
긍정(vs부정)		0.19(0.17)	1.21	0.87	1.68

* 참조범주: 저각성 정서, 부정정서

* $p < .05$, ** $p < .01$, *** $p < .001$.

적으로 저각성 정서와 비교하여 고각성 정서가 나타날 확률이 1.71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내 대중가요의 가사에 저각성의 정서보다 고각성의 정서가 더 많이 표현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대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191$, Wald $\chi^2(1) = 1.319$, *n.s.*)(표 4).

다음으로, 발매연대에 따라 정서 표현의 각성수준이 달리 나타나는지, 즉 발매연대에 따른 이상적 정서의 변화와 이상적 부정정서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위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각성 긍정정서에 대한 분석에서는 저각성 긍정정서를 기준집단으로 사용하였고, 고각성 부정정서에 대한 분석에서는 저각성 부정정서를 기준집단으로 사용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발매연대가 고각성 긍정정서, 혹은 저각성 긍정정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1.30$,

Wald $\chi^2(1) = 14.49$, $p < .001$). 즉, 발매연대가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저각성 긍정정서와 비교하여 고각성 긍정정서가 나타날 확률이 3.68배 높았다. 반면 고각성 부정정서와 저각성 부정정서에 대한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b = .171$, Wald $\chi^2(1) = .658$, *n.s.*)(표 5).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대중가요 가사에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표현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집단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인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인 고각성 긍정정서가 가사에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곡의 발매연대에 따라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의 강도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

표 5. 발매연대에 따른 차원 2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과변수	예측변수	B(S.E)	Odds Ratio	95% CI for Odds Ratio	
				Lower	Upper
HAP (vs LAP)	발매연대	1.30(0.34)***	3.68	1.88	7.20
HAN (vs LAN)		1.17(0.21)	1.19	0.79	1.80

* 참조범주 : LAP, LAN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발매연대에 따른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 강도의 ANCOVA 결과

준거변수	예측변수	SS	df	MS	F
행위자의 의도의 강도	친숙도	0.414	1	.414	.863
	발매연대	0.810	3	.270	.563
상황의 의도의 강도	친숙도	0.002	1	.002	.941
	발매연대	0.841	3	.280	.499
정서 표현의 강도	친숙도	0.513	1	.513	1.188
	발매연대	1.487	3	.496	1.148

* $p < .05$, ** $p < .01$, *** $p < .001$.

(ANCOVA)을 실시하였다.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평정자의 개인적인 곡 친숙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평정된 곡 친숙도를 각 차원의 표현 강도와 함께 공변량으로 분석에 투입하여 통제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차원의 강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행위자의 의도: $F(3,160)=.563$, *n.s.*, 상황의 의도: $F(3,160)=.499$, *n.s.*, 정서 표현: $F(3,160)=1.148$, *n.s.*). 이러한 결과는 가사에 드러난 행위자의 의도, 상황의 의도 및 정서 표현의 강도가 곡의 발매연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6).

연구 1에서는 1980년에서부터 2018년 사이 발매된 한국 대중가요 가사를 내용분석하여 문화적 산물인 가사에서 문화성향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원 1인 영향 대 적응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1과 가설 2는 기각되었다. 둘째, 코너들이 느끼는 곡에 대한 친숙도를 통제하고도, 차원 2인 정서 표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성수준과 긍정정서에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곡의 발매연대가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저각성 정서에 비해 고각성 정서가 가사에 더 빈번히 나타났으며, 특히 저각성 긍정정서에 비해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자주 관찰되어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영향 대 적응과 정서 표현이 가사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된 강도의 경우는 두 차원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1의 결과, 1980년대에서 2010년대로 올수록 인기 대중음악 가사에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각성 긍정정서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이상적 정서이다. 노래 가사에는 실제 경험하는 정서 뿐만 아니라 이상적 정서도 표현되게 마련이므로, 연구 1의 결과는 한국인이 점차 개인주의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에 대한 대안적 해석도 가능하다. 19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집단주의적이고 발라드를 선호하는 20-40대가 대중음악의 인기를 좌우했던 반면, 201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개인주의적이고 댄스음악을 선호하는 10-20대가 대중음악의 인기를 좌우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구 1의 결과는 한국인 전체의 개인주의화를 시사하는 것이라기보다, 대중음악의

인기를 좌우하는 집단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 2에서는 위와 같은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일수록 고각성 긍정 정서가 드러나는 대중음악 장르를 선호하는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일수록 저각성 긍정 정서가 드러나는 대중음악 장르를 선호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2

연구 1에서 나타난 결과가 문화성향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음악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나이와 인기장르의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980년대에는 대중음악의 주된 향유층이 20대에서 40대로 폭넓고 다양했으나, 2010년대에는 음원을 구입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차트 순위를 좌우하는 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 초반으로 한정되었다(e.g., 우지혜, 백선기, 2018).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중음악을 소비하는 주체와 인기 장르가 달라졌다는 것은, 연구 1의 결과가 대중가요 가사에 반영된 문화성향 변화라기보다 소비 주체 및 인기 장르와 가사에서 표현된 이상적 정서가 변화하여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 1에 포함된 곡들을 분석해본 결과, 발라드와 댄스음악에 속하는 곡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두 장르를 비교하였을 때는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발라드에 비해 댄스음악이 나타날 확률이 2.21배 높았다($b=.792$, Wald $\chi^2(1)=14.723$, $p<.001$). 연구 1의 표본이 골든컵 수상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과거에 비하여 한국 대중들에게 댄스음악이 발라

드보다 사랑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는 음반 판매량이다. 현재 음반 판매량 순위에서 상위권은 모두 아이들이 차지하고 있고, 음원차트에서도 아이들의 활동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이시림, 이수현, 2019).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생각해보면, 본 연구의 결과가 가사에 문화성향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음악차트에 댄스음악이 자주 오르게 되어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많이 관찰되는 것, 즉 인기 장르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해석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2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의 문화성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일수록 고각성 긍정 정서를 담은 장르를 선호할 것인 반면, 집단주의적일수록 저각성 긍정 정서를 담은 장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더 나아가, 연구 2에서는 탐색적으로 문화성향과 음악기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음악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대표연구자인 Boer(2009)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음악의 기능이 개인적 활동, 사회적 활동 및 문화적 활동의 차원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Boer는 음악기능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뉴질랜드, 멕시코, 독일, 터키, 케냐,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음악 기능의 문화차를 알아보았다(Boer & Fisher, 2012). 그 결과, 어떤 문화권에서나 개인적 기능으로의 음악 사용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문화의 차이는 사회적 기능에서 문화적 기능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다. 즉, 세속적 가치보다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음악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자기 정체성이나 집단 자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

악을 듣는 일상적인 행동에까지 확장되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 음악을 사회적, 문화적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2의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개인이 지닌 문화성향과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도 간에 관계가 있는가?

가설 1: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고각성 음악을 더 선호할 것이고,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저각성 음악을 더 선호할 것이다.

가설 2: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음악을 사회적, 문화적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각성 수준을 기준으로 대중음악 장르 9가지에 대한 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비 연구는

집단 심층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중음악 장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실용음악 전공자 및 음악 관련 직업 종사자 총 4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가장 먼저 9가지 대중음악 장르의 특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의하였고, 어떠한 기준으로 각성 수준을 결정할 것인지 정한 후 각자 순위를 매겼다. 그 후, 순위를 역채점하여 점수를 산출한 후에(예: 1위가 9점, 9위가 1점), 장르 별로 4명의 합산 점수를 구하여 하나의 순위를 구성하였다. 최종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도출된 순위가 타당한지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예컨대, 록/메탈과 트로트/성인가요가 각각 1위, 2위를 차지하였으나, 연구참가자들의 의견이 대립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들은 선율, 자주 쓰이는 악기, 편곡 및 가사의 내용 등 두 장르를 각성 수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전반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하였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견을 일치시켜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예비 연구에는 3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각 연구참가자가 대중음악 장르에 부여한 순위와 최

표 7. 대중음악 장르에 부여한 연구참가자 개인 별 각성순위와 최종 각성순위

	참가자 1	참가자 2	참가자 3	참가자 4	최종 순위
1위	록/메탈	댄스	댄스	록/메탈	트로트/성인가요
2위	발라드	트로트/성인가요	트로트/성인가요	트로트/성인가요	록/메탈
3위	트로트/성인가요	록/메탈	록/메탈	댄스	댄스
4위	랩/힙합	랩/힙합	랩/힙합	랩/힙합	랩/힙합
5위	R&B/SOUL	R&B/SOUL	R&B/SOUL	R&B/SOUL	R&B/SOUL
6위	댄스	인디음악	포크	발라드	발라드
7위	포크	발라드	인디음악	포크	포크
8위	인디음악	포크	발라드	인디음악	인디 음악
9위	재즈	재즈	재즈	재즈	재즈

중 결정된 순위는 표 7과 같으며, 순위가 높을수록 장르의 각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방 법

연구참가자

본 연구는 대중가요의 주요 소비층인 동시에(경향신문, 2017), 중장년층보다 다양한 음악 장르들을 접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20, 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참가자 모집에 앞서 성신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SSWUIRB-2019-037)을 받았으며, 윤리 기준을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국 거주 성인 남녀 총 196명이 온라인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된 링크와 인근 학교 게시판에 부착된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만 18세 이하이거나 40세 이상인 11명을 제외하고 총 185명(여 131명, 남 54명; 평균 연령 = 27.39세, 표준편차 = 5.21)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측정도구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

연구참가자들이 여러 대중음악 장르를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äfer, Tipandjan와 Sedlmeier(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은 한국 대중음악의 주요 장르인 성인가요/트로

트, 댄스음악, 발라드, 록/메탈, 랩/힙합, R&B, 인디음악, 포크음악, 재즈에 대하여 각 음악장르를 어느 정도로 선호하는지를 평정하였다. 제시된 8가지 대중음악 장르들은 멜론, 벅스, 지니와 같은 가장 대중적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분류한 장르들로 구성하였다.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나는 이 음악이 좋다’, ‘나는 이 음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이 음악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썼다’, ‘나는 이 음악의 열정적인 팬이다’, ‘나는 이 음악을 듣기 위해 종종 콘서트에 간다’, ‘나는 이 음악이 필요하다’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다. 연구참가자들은 각 대중음악 장르에 대하여 위의 6문항에 응답하였다. 응답 시에는 1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6문항에 대한 응답을 평균낸 값을 사용하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장르를 강하게 선호함을 의미한다. 선호 음악장르의 내적합치도는 .90 에서 .96의 범위에 있었다(성인가요/트로트: $a=.91$, 댄스음악: $a=.90$, 발라드: $a=.91$, 록/메탈: $a=.96$, 포크: $a=.93$, 랩/힙합: $a=.95$, 재즈: $a=.95$, 인디음악: $a=.94$, R&B: $a=.95$).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

연구참가자들이 지닌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 (1995)가 개발하고, 김기범(1996)이 한국어로 번안한 개인문화성향척도(INDCOL: Individualism-Collectivism)를 사용하였다. 개인문화성향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수직적, 수평적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문화성향을 세분화하여 측정하는 척도로, ‘나는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사람이다’, ‘나에게는 내가 하나의 인

격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수평적 개인주의),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매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수직적 개인주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만일 친인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능력이 되는 데까지 도와줄 것이다'(수평적 집단주의), '부모님과 자식들은 가능한 한 함께 살아야 한다',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나의 이익을 양보한다'(수직적 집단주의)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연구참가자들은 수직적, 수평적 개인주의와 수직적, 수평적 집단주의 각 8문항씩 총 32개의 문항들에 대하여 1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이 후 분석을 위해, 전체 개인중심성향(수직적 개인주의와 수평적 개인주의)와 전체 집단중심성향(수직적 집단주의와 수평적 집단주의)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0에서 .83의 범위에 있었다(전체: $a=.79$, 개인주의: $a=.79$, 집단주의: $a=.81$, 수직적 개인주의: $a=.79$, 수평적 개인주의: $a=.83$, 수직적 집단주의: $a=.70$, 수평적 집단주의: $a=.77$).

음악기능

연구참가자들이 음악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oer와 Fischer(2012)가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및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음악기능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를 이정윤과 김민희(2017)가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음악기능 척도는 친구와의 유대 5문항(예: 음악을 들으

면 친구들과 내가 함께했던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 가족과의 유대 4문항(예: 우리 가족의 공통된 음악취향은 우리 가족을 결속시킨다), 스트레스 해소 4문항(예: 음악은 나의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수단이다), 정서 전달 4문항(예: 어떤 노래는 매우 강력해서 들으면 눈물이 난다), 춤 유도 3문항(예: 나는 특정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배경 음악 3문항(예: 많은 경우 나는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집중 향상 3문항(예: 음악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돕는다), 정치적 태도 표현 3문항(예: 음악은 정치적 참여의 수단으로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정체성 반영 3문항(예: 우리나라의 음악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부분이다), 가치 발달 3문항(예: 음악은 나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김민희, 이정윤, 2017), 개인적 기능(집중 향상, 배경음악, 정서 전달, 스트레스 해소) 14문항, 사회적 기능(친구와의 유대, 춤 유도, 가치 발달 기능) 11문항, 문화적 기능(정치적 태도 표현, 문화적 정체성 반영, 가족과의 유대) 10문항으로 나뉜다. 연구참가자들은 총 35문항에 대해 각각 1점(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전적으로 동의한다)까지의 6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9에서 .90의 범위에 있었다(전체: $a=.93$, 개인적 기능: $a=.90$, 사회적 기능: $a=.85$, 문화적 기능: $a=.79$).

인구통계학적 변수

주요 변수들 외에 성별, 음악 관련 전공 및 관련 직종 종사 여부, 일일 음악청취 시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 인구통계학적 정보들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하였다. 음악 관련

전공 및 관련 직종은 음악과 관련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는지 여부와 현재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답하게 하였다. 또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장르가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에 따라(Snibbe & Markus, 2005),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McArthur 사다리로 측정하였다(Adler, Epel, Castellazzo, & Ickovics, 2000). 연구참가자들은 사다리 그림과 함께 사다리 위쪽에는 가장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가장 아래 쪽에는 가장 가난하고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이 있다는 설명문을 읽고,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가자들이 하루 동안 음악을 얼마나 듣는지 알아보기 위해 24시간 중 음악을 듣는 대략적인 시간을 주관식으로 답하게 하였다. 연구참가자들의 일일 음악청취 시간 외에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음악 관련 전공 및 관련 직종 종사 여부는 주요 변수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예비 연구가 종료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질문지 링크를 배포하거나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를 인근 학교 학내 게시판에 부착하여 연구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질문지에 포함된 모든 척도들은 순서를 무작위로 섞은 후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문화성향,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와

음악기능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준상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준상관분석은 다변량 분석기법으로, 2개 이상의 종속변수들과 2개 이상의 독립변수들 간의 구체적 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이다(오홍철, 2001).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중회귀분석의 경우 2개 이상의 독립변수들로 구성된 선형함수들로부터 한 개의 계량적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의 관심이 한 개의 종속변수에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종속변수들과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에 있을 수 있다(오홍철, 2001). 본 연구에서는 문화성향 변수군과 각성 수준에 따라 분류된 대중음악 장르 변수군 및 음악기능 변수군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본 분석에 앞서,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와 문화성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표 8).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와 문화성향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고각성으로 분류된 장르인 트로트($r=.187, p<.05$), 랩/힙합($r=.237, p<.01$), R&B($r=.206, p<.01$)과 저각성으로 분류된 장르인 발라드($r=.413, p<.001$), 포크($r=.202, p<.01$), 재즈($r=.157, p<.05$)가 집단주의 성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을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트로트와 랩/힙합, R&B, 발라드, 포크 및 재즈를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주의 성향과 선호 음악장르

표 8.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개인주의	1														
2. 집단주의	.062	1													
3. 트로트	.027	.187*	1												
4. 록/메탈	.088	-.086	.143	1											
5. 댄스음악	.113	.143	.469***	.127	1										
6. 발라드	.011	.413***	.415***	.072	.454***	1									
7. 랩/힙합	.012	.237**	.174*	.288***	.316***	.258***	1								
8. R&B	.105	.206**	.249***	.165*	.261***	.402***	.425***	1							
9. 포크	.105	.202**	.248***	.552***	-.014	.248***	.042	.373**	1						
10. 인디음악	-.036	.085	.045	.279***	.084	.170*	.253***	.252***	.226**	1					
11. 재즈	.102	.157*	.111	.149*	.065	.150*	.104	.491***	.430***	.216**	1				
12. 개인적기능	.332***	.301***	.153*	.010	.291***	.234**	.135	.243**	.141	.112	.185*	1			
13. 사회적기능	.203**	.421***	.205***	.172*	.369***	.319***	.275***	.291***	.248***	.197**	.289***	.639***	1		
14. 문화적기능	.146*	.326***	.295***	.119	.274**	.288***	.177*	.158*	.294***	.275***	.234**	.482***	.646***	1	
15. 일일음악청취시간	.193**	-.091	-.076	.146*	.076	-.044	-.075	.061	-.091	.074	.008	.270***	.061	.031	1
평균	8.30	8.00	2.21	2.70	3.74	3.83	3.16	3.34	2.50	3.28	2.93	4.55	4.25	3.60	140.43
표준편차	1.10	1.13	1.05	1.39	1.14	1.14	1.39	1.30	1.07	1.26	1.26	0.73	0.80	0.74	114.71

* $p < .05$, ** $p < .01$, *** $p < .001$.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성향과 음악기능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개인주의와 개인적 기능($r=.332, p<.001$), 사회적 기능($r=.203, p<.01$), 문화적 기능($r=.146, p<.05$)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집단주의 성향 또한 개인적 기능($r=.301, p<.001$), 사회적 기능($r=.421, p<.001$) 및 문화적 기능($r=.326,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개인주의의 경우 세 가지 음악기능 중 개인적 기능과 가지는 상관 크기가 가장 컸고,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은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집단주의의 경우 사회적 기능과의 상관 크기가 가장 컸고, 개인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이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가자들이 음악의 세 가지 기능들을 골고루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관의 크기를 살펴볼 때 주로 사용하는 음악기능에는 문화성향 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일일 음악 청취 시간과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 문화성향 및 음악기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일일 음악 청취 시간과 록/메탈에 대한 선호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r=.146, p<.05$). 이 결과는 하루에 음악을 듣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록/메탈을 더 선호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성향과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 간의 정준상관

문화성향과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 간의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점수와 집단주의 점수를 예측변수군으로 하였고, 선호 음악장르를 준거변수군으로 설정하여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두 변수군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2개의 정준함수 중 1개의 유의한 정준상관함수(정준함수1: Wilk's lamda = .706, $F=3.684, df=18.000, p<.001$)가 도출되었다(표 9). 그러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준함수1에 대한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문화성향과 대중음악 장르 두 변수군에서 도출된 단순정준상관계수는 .509($p<.001$)이었다. 더불어 정준 변량군들 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을 나타내는 함수별 정준중복지수(redundancy coefficient)(성혜진, 2019)를 살펴보면,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는 문화성향 변수들의 분산은 12.83%이고, 문화성향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는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 변수들의 분산은 4.3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변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화된 정준 계수, 정준 부

표 9. 문화성향과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정준상관함수의 통계적 유의성 및 정준상관계수

	Canonical Correlation	Eigenvalue	Wilks' lamda	df	F
함수1	.509	.349	.706	18.000	3.684***
함수2	.220	.051	.952	8.000	1.113

* $p<.05$, ** $p<.01$, *** $p<.001$.

하량, 정준 교차부하량을 산출하였다. 정준상관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표준화된 정준 계수, 정준 적재량, 정준 교차부하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정준 교차적재량을 먼저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준 교차부하량과 함께 표준화 정준계수, 정준 부하량을 사용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정준 변량의 수용기준은 연구자들마다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Hair, Anderson, Tatham과 Black(1998)이 제시한 기준인 .40을 이상일 때 각 정준 변량을 대표하는 변수로 추출하였다.

먼저, 정준 교차부하량(cross loading)을 살펴 보았다. 정준 가중치들은 값이 가지는 부호로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값이 반대부호를 가지는 변수들은 변수 간 역의 관계를 가지게 되며, 같은 부호를 가지는 변수들은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다(오홍철, 2001). 정준함수 1에서 문화성향은 집단주의(-.506)가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장르는 발라드(-.412)가 .4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주의와 발라드가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며, 이는 정적인 상관으로써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발라드 음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준화 정준계수(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보면, 문화성향 요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은 집단주의(-1.001)로 나타났다. 정준 부하량(canonical loading)에서도 집단주의(-.996)가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는 표준화 정준계수와 정준 부하량 모두에서 .40보다 값이 작아 군내 중요도가 낮았다. 대중음악 장르 변수군에 대한 표준화 정준계수를 살펴보면,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 요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은 발라드(-.740), 랩/힙합(-.517), 록/메탈(.48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준 부하량에서는 발라드(-.811), 랩/힙합(-.464) 순으로 군내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과 발라드, 랩/힙합 음악의 선호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집단주의 성향과 록/메탈 음악의 선호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발라드, 랩/힙합 음악을 선호하는 동시에 록/메탈 음악은 덜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표 10).

문화성향과 개인의 음악기능 간의 정준상관

문화성향과 음악기능 간의 정준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주의 점수와 집단주의 점수를 예측변수군으로 하였고, 음악기능을 준거 변수군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정준상관분석 결과, 2개의 정준함수 모두 유의한 정준상관함수(정준함수1: Wilk's lamda = .728, $F=10.317$, $df=6.000$, $p<.001$, 정준함수 2: Wilk's lamda = .217, $F=4.491$, $df=2.000$, $p<.05$)를 도출하였다(표 11). 그러나 정준 변량 간의 중복 분산을 의미하는 아이겐값(Eigenvalue)의 경우 정준함수1이 30.9%였던 데 비하여 정준함수2는 5%의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더 의미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정준함수1을 기준으로 정준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오홍철, 2001; 이강훈, 2019). 문화성향과 음악기능 두 변수군에서 도출된 단순 정준상관계수는 .486($p<.001$)이었다. 더불어 정준중복지수를 살펴보면, 음악기능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는 문화성향 변수들의 분산은 12.46%이고, 문화성향 변수들로 설명될 수 있는 음악기능 변수들의 분산은 16.63%로 나타났다.

표 10. 함수 1 문화성향과 선호 음악장르 간의 정준상관 분석 결과

factors	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Canonical Loading	Cross Loading	
문화성향	개인주의	.094	.032	.016
	집단주의	-1.001	-.996	-.506
Redundancy Coefficient		.128		
선호 음악장르	트로트/성인가요	-.063	-.363	-.185
	록/메탈	.485	.185	.094
	댄스음악	.151	-.261	-.132
	발라드	-.740	-.811	-.412
	랩/힙합	-.517	-.464	-.236
	R&B	.240	-.387	-.197
	포크	-.340	-.378	-.192
	인디음악	-.009	-.174	-.088
	재즈	-.171	-.291	-.148
Redundancy Coefficient		.043		

표 11. 문화성향과 음악기능에 대한 정준상관함수의 통계적 유의성 및 정준상관계수

	Canonical Correlation	Eigenvalue	Wilks' lamda	df	F
함수1	.486	.309	.728	6.000	10.317***
함수2	.217	.050	.953	2.000	4.491*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각 변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화된 정준 계수, 정준 부하량, 정준 교차부하량을 산출하였다. 먼저 정준 교차부하량을 살펴보면, 정준함수 1에서 문화성향은 집단주의(-.412)가, 음악기능은 개인적 기능(-.421), 사회적 기능(-.451)이 .4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기능은 사회적 기능이 가장 큰 절대값을 가졌으며, 개인적 기능

과 문화적 기능이 그 다음이었다. 따라서 집단주의와 음악의 개인적 기능, 사회적 기능 및 문화적 기능이 큰 연관성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집단주의와 사회적 기능이 가장 큰 정적 연관성을 보였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음악을 사회적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세부적인 해석을 위하여 표준화 정준계

표 12. 함수 1 문화성향과 음악기능 간의 정준상관 분석 결과

factors	Standardized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s	Canonical Loading	Cross Loading
문화성향	개인주의	-.480	-.579
	집단주의	-.720	-.849
	Redundancy Coefficient	.125	
음악기능	개인적 기능	-.613	-.868
	사회적 기능	-.695	-.929
	문화적 기능	-.176	-.707
	Redundancy Coefficient	.166	

수와 정준 부하량을 살펴보았다. 표준화 정준 계수를 살펴보면, 문화성향 요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은 집단주의(-.720), 개인주의(-.480) 순으로 나타났고, 정준 부하량도 마찬가지로 집단주의(-.849), 개인주의(-.579) 순이었다. 음악 기능 변수군에 대한 표준화 정준 계수를 살펴보면, 문화성향 요인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항목은 사회적 기능(-.695), 개인적 기능(-.613)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기능(-.176)은 .30 이하로 군내 기여도가 낮았다. 정준 부하량에서는 사회적 기능(-.929), 개인적 기능(-.868), 문화적 기능(-.707) 순으로 군내 변량을 설명하였다. 이는 문화성향 변수군과 음악기능 변수군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표 12). 개인주의 혹은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 모두 음악을 들을 때 세 가지 음악기능을 고루 사용하지만, 앞선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특히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일수록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여기며, 개인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 순으로 음악을 사용함을 시사한다.

연구 2에서는 20, 30대 한국인들의 문화성

향에 따라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도와 음악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째, 문화성향 가운데 집단주의는 대중음악 장르 중 발라드에 대한 선호도와 가장 큰 연관성을 보였고, 랩/힙합에 대한 선호도와는 정적으로, 록/메탈에 대한 선호도와는 부적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닐수록 각성수준 4위(랩/힙합), 6위(발라드)의 중·저각성 음악을 선호하고, 각성수준 2위(록/메탈)의 고각성 음악을 덜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주의 성향과 그 외에 대중음악 장르들, 즉 각성 순위 1위(성인가요/트로트), 3위(댄스음악), 5위(R&B), 7위(포크), 8위(인디음악), 9위(제즈)에 대해서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개인주의는 어떠한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선호도와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둘째, 문화성향과 음악기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보였다. 특히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와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 가장 큰 정적 연관성을 보였으며, 개인적 기능과 문화성향과도 관련

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 성향과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 모두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기능으로 고루 즐기지만,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음악의 사회적 기능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대중가요 가사에 한국인의 문화성향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지와 개인의 문화성향이 선호하는 대중음악 장르와 관련이 있는지를 내용분석과 조사연구 방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는 곡의 발매연대가 201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저각성 정서와 비교하여 고각성 정서가 가사에 더 빈번하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저각성 긍정정서에 비해 고각성 긍정정서가 더 자주 관찰되었다. 이는 Tsai 등(2006)이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선호되는 이상적 정서(즉, 고각성 긍정정서)가 집단주의 문화권의 이상적 정서(즉, 저각성 긍정정서)보다 더 자주 표현된 것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국이 개인주의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 2에서는 문화성향 가운데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발라드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닐수록 발라드와 랩/힙합과 같은 중·저각성 음악을 선호하는 동시에 록/메탈과 같은 고각성 음악을 덜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과 중·저각성의 음악장르에 대한 선호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집단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각성 수준이 높은 것보다는 낮은 것을 더 선호할 것이라는 연구의 가설과도 일정 부분 일치한다. 셋째, 음악 기능에 관한 탐색적 분석에서는 문화성향 중 집단주의와 음악의 사회적 기능이 가장 큰 정적 연관성을 보였으며, 개인적 기능은 그 다음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준상관분석 이전에 실시하였던 적률상관분석 결과에서는 개인주의는 개인적 기능과 가지는 상관 크기가 가장 컸고, 사회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은 작은 크기의 상관을 보였다. 반면 집단주의는 사회적 기능과 가지는 상관 크기가 가장 컸고, 개인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과의 상관 크기는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의 결과는 기존 연구(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와도 맥을 같이 한다. 위 연구들에서는 1979년부터 1998년(나은영, 차재호, 1999), 그리고 1998년부터 2010년(나은영, 차유리, 2010)의 기간 동안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장기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두 가지 연구 모두에서 젊은 층과 고학력,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가 크게 증가하였다. 1979년에는 남녀 모두 ‘나라’를 택한 응답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1998년에 들어서는 자신과 가족을 택한 응답자들이 과반수가 됨으로써 개인주의가 주류 가치관으로 진입하였다(나은영, 차유리, 2010). 상기 연구와 1980년부터 2018년까지의 인기가요를 대상으로 한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다 뚜렷해지는 경향이 문화적 산물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 2에서 집단주의 성향과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진 발라드 음악은 각

성수준 6위로, 낮은 각성 수준의 대중음악 장르이다. 그 다음으로, 랩/힙합은 집단주의 성향과 정적인 연관을 가진 반면, 록/메탈은 집단주의 성향과 부적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장르는 각각 각성수준 4위와 2위로, 랩/힙합 음악은 발라드보다는 비교적 높은 각성가를 가지는 중간 정도의 각성수준을 지닌 대중음악 장르인 반면, 록/메탈은 9가지의 대중음악 가운데 꽤 높은 수준의 고각성 음악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저각성의 음악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집단주의 문화권 사람들이 느리고 감미로운 멜로디의 음악을 좋아한다는 Schäfer 등(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음악의 정서를 분석한 Liu, Wai, Kumaran, Saravanan과 Lin (2018)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록/메탈과 팝 음악이 가장 높은 각성 수준을 가지며 랩과 클래식 음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이는 랩과 클래식 음악이 상대적으로 리듬과 보컬이 적기 때문에 각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중음악 장르를 각성 수준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록/메탈과 같은 고각성 음악의 비선호와 발라드, 랩/힙합과 같은 중·저각성 음악의 선호가 집단주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 2의 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일수록 낮은 각성수준을 가진 음악을 더욱 좋아하고 즐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음악기능과 관련한 연구 2의 결과는 문화성향과 관계없이 개인적 동기에 의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나,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 즉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개인주

의 성향의 사람들에 비하여 음악을 사회적, 문화적 기능 중심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음악기능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를 실시한 Boer 등(201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닌 사람들은 집단 내의 조화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추억을 쌓거나 함께 춤을 추는 등의 사회적 기능에 중점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먼저, 연구 1에서 영향 대 적응을 측정하였던 차원 1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가요 가사가 가지는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가요의 특성 상 작사는 가사 속 화자의 이야기를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담아야 하므로, 이야기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는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영향 대 적응을 기준으로 대중가요 가사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영향 대 적응과 관련하여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로 대중가요 가사의 표현 방식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가요검열로 인하여 가사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나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면, 2000년대 이후 검열이 완화되어 사용하는 단어는 다양해졌으나 큰 뜻을 지니지 않은 반복적인 가사나 의성어와 같은 의미가 모호한 가사가 빈번하게 나타났다(e.g., 김용학, 2015; 홍연주, 2010) 특히 의미 없는 가사들의 나열을 통해서 정서 표현은 일부만 읽어낼 수 있었으나, 대인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는 알 수 없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대중가요 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후연구에서는 핵심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후렴 파트만 분석에 포함시키거나 영향 대 적용 차원이 아닌 더욱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분석기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 2의 경우 집단주의 성향과는 달리 개인주의 성향과 음악선호 간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연구참가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중음악 장르들을 크게 선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문화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음악장르가 달라지는지 검증한 Jia(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대중음악 장르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중음악 장르들을 주류(mainstream music)와 비주류(indie/subcultural music)로 나누어 문화성향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주의 성향의 경우 주류와 비주류 음악에 대한 선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일수록 비주류의 음악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주류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반면, 주류 음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집단성에 의해 조작되기 쉽다는(즉, 집단주의적이라는) 선행연구(Negus, 1996)와도 일치하는데, Jia(2013)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특한 음악장르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Jia, 2013). 또한, 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집단주의 성향과 현재 한국 대중가요의 가장 대표적인 주류 장르인 발라드 및 랩/힙합 음악(경향신문, 2017; Motley

& Henderson, 2007)에 대한 선호가 큰 관련성을 보였던 본 연구 2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중음악 장르들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르들이었기 때문에, 비주류 음악을 선호하는 개인주의 성향과 선호 대중음악 장르 간의 관련성이 본 연구에서 관찰되지 않았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문화성향과 주류 및 비주류 음악에 대한 선호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대중음악 장르를 주류(트로트, 댄스음악, 발라드, R&B, 랩/힙합)와 비주류(록/메탈, 포크, 인디음악, 재즈)로 나누어, 개인주의-집단주의 점수와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주의 성향과 비주류 음악에 대한 선호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주의 성향과 주류 음악에 대한 선호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개인주의 성향의 경우 두 음악 모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주의 성향과 주류 음악에 대한 선호 및 비주류 음악에 대한 선호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두 상관계수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도 없었다. 위 분석결과는 집단주의 성향을 많이 지닐수록 주류 음악을 더 선호함을 보여주며, Jia(2013)과 Negus(1996)의 결과와도 일부분 일치한다.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개인주의에 대하여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장르를 연구에 포함하였을 때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나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두 가지 문화성향을 비교할 만큼 명확히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2는 한국 연구참가

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성향을 측정된 문화 내 개인차 연구였다. 문화 내 비교는 비교문화연구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문화적 개념들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속성들을 확인하여 문화적 개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지만, 문화적 성향의 개인차에 따른 차이가 문화 간 차이의 축소판이 될 수는 없다(설선혜, 최인철, 2009). 즉, 개인주의 문화권과 집단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 그 결과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측정 도구로 문화성향을 측정된 Jia(2013)의 연구에서 문화성향에 따른 선호 장르가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위 두 가지 추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중음악 장르보다 더 많은 장르들을 포함한 비교문화연구를 통해 문화성향과 선호 대중음악 장르의 관계를 재조사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중음악과 문화성향이라는 독특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1은 문화적 산물인 대중가요 가사에 반영된 한국인의 문화성향을 살펴봄으로써, 자기보고식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성향을 측정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를 내용분석을 통해 극복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문화성향과 선호하는 대중음악 장르, 음악기능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음악은 그 속에 다양한 문화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의 연구주제로서 큰 가치가 있다. 본 연구가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음악 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음악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인하여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넘치는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선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의 만족감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e.g., Iyengar & Lepper, 2000).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들이 즐겨듣는 음악들을 분석하여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문화성향, 더 넓게는 각 문화권 별로 선호할 만한 음악장르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뿐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 지니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경우, 각 나라의 문화성향을 분석하여 그들이 선호할 만한 유인가와 각 성수준을 고려한 음악을 만든다면 다양한 팬들의 선호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K-pop 열풍으로 한국 대중음악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지금, 문화성향이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1에서 잠재적 내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내용분석의 방법은 명시적 내용분석과 잠재적 내용분석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중가요 가사의 특성(예: 은유적 표현, 축약)을 고려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특정 단어의 수를 계산하는 식의 명시적 내용분석보다 가사가 가지는 의미를 더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석의 주관성으로 인하여 평정자들 간에 느끼는 바가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정자 간 일치도를 구

하였고, 불일치는 토론으로 해결하였으나,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들을 분석하였을 때에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 2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2·30대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2·30대는 40대나 그 이후 세대와 비교하여 유년시절에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를 접하고 즐긴 세대인 동시에 10대보다는 팬덤 문화가 강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2·30대를 대상으로 대중음악 장르 선호를 측정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한국인의 문화성향과 대중음악 장르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를 포함한 조사가 필요하다. 10대는 2·30대와 비교하여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며, 4·50대와 그 이후 세대는 2·30대에 비하여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므로, 이에 따라 선호하는 대중음악 장르가 달라질 것이다. 문화성향이나 가치관에 있어, 젊은 층의 변화 폭이 고 연령층의 변화 폭보다 더 크므로(나은영, 차재호, 1999),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한국인의 특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는 대중음악 전문가들이 대중음악 장르를 각성수준 별로 나누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가자들이 선호하는 대중음악 장르와 개인이 지닌 문화성향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나, 각 장르 내에서도 다양한 각성수준과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개인이 생각하는 장르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발라드라는 장르를 제시하였을 때 아주 느리고 잔잔한 음악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박자는 느리지만 풍성한 악기편성과 고음으로 애통함을 표현하는 음악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인디음악이라고 할지라도 하위 장르가 여러 가지이므로, 각자 생

각하는 정의가 달랐을 수 있다. 비록 대중음악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특정 장르가 연상시키는 보편적 특성을 바탕으로 장르를 분류하였으나, 사람들마다 떠올리는 장르의 특성 차이가 결과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각성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장르를 나누고, 몇 곡의 음악을 골라 연구참가자들에게 직접 들려주는 방식의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 장르를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정한 각성수준대로 나누었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가자들이 지각된 각성 수준과 선호도를 평정하고 그들이 지닌 문화성향을 측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으며, 그 속에는 아직 조명 받지 못한 심리학 연구의 주제들이 숨어있다. 음악은 개인의 삶과 일상적인 행동에 점점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음악은 접촉, 사회인지, 공감, 의사소통, 협력, 그리고 사회적 응집과 같은 많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문화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활동에 참여한다(Ilari, 2016).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이유로 음악에 대한 설명은 물리과학보다 사회과학에서 더 빈번하게 찾아야만 하며(Farnsworth, 1958), 음악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학적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Hargreaves & North, 1999). 본 연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음악이라는 주제에 대한 탐구와 주류에서 벗어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의 심리학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기범 (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 집단-외집단 구별: 문화 비교 분석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서홍 (2018). 80년대 대중가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심리 표상.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66-266.
- 김양분 (2004). 교육평가용어 사전. 서울: 학지사.
- 김용학 (2015). 한국 대중가요의 의미 연결망: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 145-171.
- 김향미 (2017, 12, 21). 발라드 가장 많이 듣지만 비중 줄어... 록·메탈 하향세 속 '인디 음악' 약진.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2212104015&code=960802에서 2017, 12, 21 자료 얻음.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 자아존중이 자기고양 귀인과 집단고양 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9, 45-63.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4, 75-93.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37-60.
- 류승아 (2009). 정신장애인의 경쟁고용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한국과 미국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25.
- 박범중 (2015). 대중가요로 읽어내는 정치와 시대상. 동북아 문화연구, 45, 169-186.
- 박성현, 성승연 (2011). 통제양식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245-262.
-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 5-37.
- 설선혜, 최인철 (2009).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파급효과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19-38.
- 성혜진 (2019). 혼밥 고객의 외식동기와 지각된 외식가치의 정준상관분석. 관광레저연구, 31, 247-264.
- 심윤지, 최인철 (2009).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이상적 정서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9, 154-155.
- 오홍철 (2001). 호텔관광경영분야 연구에서 정준상관분석 기법의 활용 및 예시. 산업혁신연구, 17, 173-186.
- 이상욱 (2015). K-pop 노랫말의 특성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16, 109-142.
- 이시림, 이수현 (2019). 한국 아이돌,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한국 아이돌 산업 생태계의 생존과 성공 요인. 미디어, 젠더 & 문화, 34, 51-98.
- 이정운, 김민희 (2017). 한국관 음악 기능 척도의 타당화와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4, 45-70.
- 조궁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 85-106.
- 조철기 (2016). 음악의 지리교육에의 활용 방안 탐색. 한국사지리지리학회지, 26, 25-37.
- 최상진 (1995). 한국인의 통제유형. 임능빈 편. 동양사상과 심리학 (pp. 535-543). 서울: 성원사.

- 최상진, 조운동, 박정열 (2001). 대중가요 가사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 41-66.
- 최은지 (2016, 02, 03). ‘개인주의화’되는 한국인...교제시간 줄고 개인활동시간 늘고. 브릿지경제.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203010001002>에서 2016, 02, 03 자료 얻음.
- 최태진 (200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신건강: 부모애착과 수평적·수직적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의 상호관계와 그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17-152.
- 최현철 (2013). 사회과학 통계분석. 파주: 나남.
- 표정민, 최인수 (2015). 한국인의 문화적 성향 잠재집단 따른 창의성 평가의 차이: 암묵적 이론을 이용한 자기평가 및 타인 (한국인/외국인)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 27-55.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293-310.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진형 (2012). 한국인의 마음지도 I: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 435-464.
- 홍연주 (2010). 한국대중가요와 마이클 잭슨 음악의 주제 비교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 산업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0-94.
- 홍제성 (2005, 11, 03.). “한국인 집단주의 ↓ 개인주의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909.html#csidxb336d6b958e5219bc7d18575b1309f7에서 2005, 11, 03 자료얻음.
- Adler, N. E., Epel, E. S., Castellazzo, G., & Ickovics, J. R. (2000). Relationship of subjective and objective social status with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functioning: Preliminary data in healthy, White women. *Health Psychology*, 19, 586-592.
- Boer, D., & Fischer, R. (2012). Towards a holistic model of functions of music listening across cultures: A culturally decentred qualitative approach. *Psychology of Music*, 40, 179-200.
- Bond, M. H., & Hwang, K. K. (1986). The social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In M. H. Bond (Ed.), *The psychology of Chinese people* (pp. 213-26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ang, W. C., Chua, W. L., & Toh, Y. (1997).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the Asian context.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 1, 95-117.
- Cohen, D. (2007). Methods in cultural psychology. In S. Kitayama & D. Cohen (Eds.), *Handbook of cultural psychology* (pp. 196-236). New York: Guilford.
- DeWall, C. N., Pond Jr, R. S., Campbell, W. K., & Twenge, J. M. (2011). Tuning in to psychological change: Linguistic markers of psychological traits and emotions over time in popular US song lyric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5, 200-207.
- Farnsworth, P. R (1958). *The social psychology of music*. The Dryden Press.
- Frith, K. T., & Wesson, D. (1991). A comparison of cultural values in British and American print advertising: A study of magazines. *Journalism Quarterly*, 68, 216-223.
- Goldstein, A. (1980). Thrills in response to music

- and other stimuli. *Physiological Psychology*, 8, 126-129.
- Hamamura, T., & Xu, Y. (2015). Changes in Chinese culture as examined through changes in personal pronoun usag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 930-94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5, No. 3, pp. 207-219).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n, S. P., & Shavitt, S. (1994). Persuasion and culture: Advertising appeal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societi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326-350.
- Hargreaves, D. J., & North, A. C. (1999). The functions of music in everyday life: Redefining the social in music psychology. *Psychology of Music*, 27, 71-83.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 766-794.
- Heine, S. J., Lehman, D. R., Peng, K., & Greenholtz, J. (2002). What's wrong with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subjective Likert scales?: The reference-group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903-918.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 CA: Sage.
- Hong, S., & Na, J. (2018). How Facebook is perceived and used by people across cultures: The implications of cultural differences in the use of Facebook.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9, 435-443.
- Huang, C. M., & Park, D. (2013). Cultural influences on Facebook photograph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 334-343.
- Ilari, B. (2016). Music in the early years: Pathways into the social world. *Research Studies in Music Education*, 38, 23-39.
- Imada, T. (2012). Cultural narrativ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content analysis of textbook storie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 576-591.
- Iyengar, Sheena S. and Mark R. Lepper (2000), "When Choice Is Demotivating: Can One Desire Too Much of a Good Th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995-1006.
- Jia, F. (2013). *The power of music: An analysis of music genres*. Doctoral dissertation, Washington State University.
- Kim, H., Coyle, J. R., & Gould, S. J. (2009). Collectivist and individualist influences on website design in South Korea and the US: A cross-cultural content analysi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 581-601.
- Kim, H., & Papacharissi, Z. (2003). Cross cultural differences in online self presentation: A content analysis of personal Korean and US home page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3, 100-119.
- Kroeber, A. L., & Kluckhohn, C.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Random House.
- Lamb, S. J., & Gregory, A. H.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music and reading in beginning readers. *Educational Psychology*, 13,

- 19-27.
- Lamoreaux, M. & Morling, B. (2012). Outside the head and outside individualism-collectivism: Further meta-analyses of cultural produc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 299-327.
-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159-174.
- Lim, K. M., & Ang, R. P. (2006). Relationship of Primary versus Secondary Control Beliefs to Attitudes toward Seeking Help. *North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8, 557-566.
- Liu, X., Wai, A. A. P., Kumaran, S., Saravanan, Y. R., & Lin, Z. (2018, July). Instance-based genre-specific music emotion prediction with an EEG setup. In *2018 40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EMBC)* (pp. 2092-2095). IEEE.
- Lomax, A., & Halifax, J. (1971). Folk song texts as cultural indicators. In P. Maranda & E. Kongas-Maranda (Eds.), *Structural analysis of oral tradition* (pp.235-267).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cCarty, C. A., Weisz, J. R., Wanitromanee, K., Eastman, K. L., Suwanlert, S., Chaiyasit, W., & Band, E. B. (1999). Culture, coping, and context: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among Thai and American youth.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0, 809-818.
- Mesquita, B. (2001). Emotions in collectivist and individualist contex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68-74.
- Morling, B. (2000). "Taking" an aerobics class in the US and "entering" an aerobics class in Japan: Primary and secondary control in a fitness context.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73-85.
-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2). Cultural practices emphasize influ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djustment in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11-323.
- Morling, B., & Lamoreaux, M. (2008). Measuring culture outside the head: A meta-analysis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cultural produc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199-221.
- Motley, C. M., & Henderson, G. R. (2008). The global hip-hop Diaspora: Understanding the cultur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1, 243-253.
- Na, J., Kosinski, M., & Stillwell, D. J. (2015). When a new tool is introduced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Individualism - collectivism and social network on Facebook.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6, 355-370.
- Nayak, S., Wheeler, B. L., Shiflett, S. C., & Agostinelli, S. (2000). Effect of music therapy on mood and social interaction among individuals with acute traumatic brain injury and stroke. *Rehabilitation Psychology*, 45, 274-283.
- Negus, K. (1996). *Popular music in theory: An introduction*. Cambridge, UK: Polity Press

- Peng, K., Nisbett, R. E., & Wong, N. Y. (1997). Validity problems comparing values across cultures and possible solutions. *Psychological Methods*, 2, 329-344.
- Pettijohn, T. F., & Sacco Jr, D. F. (2009). The language of lyrics: An analysis of popular Billboard songs across conditions of social and economic threat.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8, 297-311.
- Purdie, N., & Hattie, J. (199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use of strategies for self-regulated learn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 845-871.
- Rentfrow, P. J. (2012). The role of music in everyday life: Current direction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music.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 402-416.
- Rothbaum, F., & Tsang, B. Y-P. (1998). Lovesong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the nature of romantic lov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 306-319.
- Rothbaum, F., Weisz, J., Pott, M., Miyake, K., & Morelli, G. (2000). Attachment and cultur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55, 1093-1104.
- Rothbaum, F., Weisz, J. R., & Snyder, S. S. (1982). Changing the world and changing the self: A two-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5-37.
- Rothbaum, F., & Xu, X. (1995). The theme of giving back to parents in Chinese and American song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6, 698-713.
- Rozin, P. (2001). Social psychology and science: Some lessons from Solomon Asc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2-14.
- Rozin, P. (2007). Exploring the landscape of modern academic psychology: Finding and filling the holes. *American Psychologist*, 62, 754-766.
- Russell, J. A. (1980). A circumplex model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61-1178.
- Sasaki, J. Y., & Kim, H. S. (2011). At the intersection of culture and religion: A cultural analysis of religion's implications for secondary control and social affil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 401-414.
- Schäfer, T., Tipandjan, A., & Sedlmeier, P. (2012). The functions of music and their relationship to music preference in India and German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7, 370-380.
- Schimmack, U., Oishi, S., & Diener, E. (2005). Individualism: A valid and important dimension of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n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9, 17-31.
- Singelis, T. M., Triandis, H. C., Bhawuk, D. P., & Gelfand, M. J. (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 240-275.
- Smith, P. C., & Curnow, R. (1966). "Arousal hypothesis" and the effects of music on purchas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0, 255-256.
- Snibbe, A. C., & Markus, H. R. (2005).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educational

- attainment, agency, and cho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703-720.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ck, F. I. (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
- Trommsdorff, G., & Friedlmeier, W. (1993). Control and responsiveness in Japanese and German mother child interactions. *Early Development and Parenting*, 2, 65-78.
- Tsai, J. L., Ang, J. Y. Z., Blevins, E., Goernandt, J., Fung, H. H., Jiang, D., & Lin, Y. (2016). Leaders' smiles reflect cultural differences in ideal affect. *Emotion*, 16, 183-195.
- Tsai, J. L., & Chentsova-Dutton, Y. (2002). Models of cultural orientation: Differences between American-born and overseas-born Asians. In K. S. Kurasaki, S. Okazaki, & S. Sue (Eds.), *Asian American mental health* (pp. 95-106). New York: Kluwer Academic.
- Tsai, J. L., Knutson, B., & Fung, H. H. (2006). Cultural variation in affect 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288-307.
- Tsai, J. L., Louie, J. Y., Chen, E. E., & Uchida, Y. (2007). Learning what feelings to desire: Socialization of ideal affect through children's storybook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7-30.
- Tsai, W. H. S., & Men, L. R. (2012). Cultural values reflected in corporate pages on popular social network sites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search in Interactive Marketing*, 6, 42-58.
- Tsai, J. L., Miao, F. F., Seppala, E., Fung, H. H., & Yeung, D. Y. (2007). Influence and adjustment goals: sources of cultural differences in ideal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1102-1117.
- Twenge, J. M., Campbell, W. K., & Gentile, B. (2012). Increases in individualistic words and phrases in American books, 1960-2008. *PloS one*, 7.
- Twenge, J. M., Campbell, W. K., & Gentile, B. (2013). Changes in pronoun use in American books and the rise of individualism, 1960-2008.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 406-415.
- Wallin, N. L., Merker, B., & Brown, S. (2000). *The origins of music*. Cambridge, MA: MIT Press.
- Weisz, J. R., Rothbaum, F. M., & Blackburn, T. C. (1984). Standing out and standing in: The psychology of control in America and Japan. *American Psychologist*, 39, 955-969.
- Yoon, K. (2002). A content analysis of the cultural values reflected in 1987 and 1997 Korean magazine advertisement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12, 40-57.
- Zhang, Y. (2009). Individualism or collectivism? Cultural orientations in Chinese TV commercials and analysis of some moderating factor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6, 630-653.

논문 투고일 : 2020. 04. 01

1 차 심사일 : 2020. 04. 14

게재 확정일 : 2020. 07. 23

Mirrors that Illuminate Culture: Koreans' Cultural Orientation Reflected in Pop Music Preferences

Inyeong Lee

Hyeky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popular music lyrics, the new research topic, reflect changes in Koreans' cultural orientation and whether individuals' cultural orientation is related to the genre of popular music that they prefer. In Study 1, we content analyzed popular music lyrics from 1980 to 2018 to see if Koreans' cultural orientations changed over time. The analysis showed that as the release dates approached the 2010s, the lyrics expressed the ideal attitudes of individualist cultures more frequently than those of collectivist cultures; this suggests that Koreans have gradually become more individualistic over time. In Study 2, we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dividuals' cultural orientations, preferences for various genres of popular music, and functions of music. The analysis showed that people with more collectivistic attitudes tended to prefer mid- and low-arousal music, such as Ballads and Rap/Hiphop, while those with less collectivistic attitudes preferred high-arousal music, such as Rock/Metal. This result is partly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collectivistic people would prefer lower to higher arousal music. In addition, our analysis showed the stronges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and the social function of music;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indicating that collectivistic people use music to maintain goo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is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 popular music, cultural orientation, content analysis, functions of music

부 록

표 1. 코딩스킴(Coding Scheme)

차원	차원에 대한 설명	예시
행위자의 의도	행위자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지	“Just One 10 minutes 내 것이 되는 시간” ¹
	행위자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자신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내 생각 말할 순 없어요” ²
상황의 의도	주변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의도에 맞게 적응하는지	“정녕 내 걸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보내드리겠어요” ³
	주어진 상황과 주변 사람들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	“뭘 어찌고 저찌고 떠들어대서 I do what I do 그니까 넌 너나 잘하셔” ⁴
정서 표현	고각성 긍정정서 (흥분한, 놀라운, 행복한 등)	“볼륨을 높여 스피커 터지도록 그리고 모두 함께 미쳐 정신 빠지도록” ⁵
	저각성 긍정정서 (만족스러운, 흡족한, 차분한 등)	“산들산들 불어오는 포근한 바람 이 밤을 지키는 나는 바람 바람이려오” ⁶
	고각성 부정정서 (불안해하는, 화난, 두려운 등)	“Oh 독한 여자라 하지마 Oh 사랑했으니 책임져” ⁷ (이정현 - 와)
	저각성 부정정서 (우울한, 따분한, 의기소침한 등)	“그 시절 생각이 나면 못 잊어 그리워지면 내 마음 서글퍼지네” ⁸

1 이효리, “10 Minutes” 2 거북이, “비행기” 3 이정석, “사랑하기에” 4 방탄소년단, “Idol”

5 2pm, “Hands up” 6 이용, “바람이려오” 7 이정현, “와” 8 함중아, “내게도 사랑이”

* 예시에 제시된 모든 문장들은 1절 가사에서 일부 발췌되었음.